

현대차그룹, 타임지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올해 국내 기업 유일하게 선정
지난해 판매량 3위 달성
‘자동차 산업의 다크호스’ 언급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지도자’ 부문에 선정되었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 ▲파괴자 ▲혁신자 ▲거물 ▲개척자의 5개 부문 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름을 올렸으며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

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며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출시된 신차들이 연이은 호평 및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산업의 다크호스’로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합산 판매량

723만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분야상인 ‘세계 올해의 차(WCOTY)’에는 최근 6년간 다섯 차례나 선정되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98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2981만 대(현대차 약 1739만 대, 기아 1242만 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현대차 91만 1805대, 기아 79만 6488대로 양사 모두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약 11%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 3000억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의 최대 해외 사업국인 미국에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진공, 중소기업에 外人 취업 지원

중진공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K-Work 플랫폼 서포터즈(KISS)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K-Work 플랫폼’은 인력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일 자리에 국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중진공



수입協, 조지아 농림부와 교역확대 논의

조지아 농림부 차관이 한국수입협회를 방문해 EPA 체결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 교역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수입협회는 지난 27일 솔로몬 파블리아슈빌리 조지아 농림부 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조지아 간 교역 확대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수입협회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해운協 “북극항로 개발공약 매우 시의적절”

“부산항 선제투자로 주도권 확보해야”
해수부 부산이전엔 조심스러운 입장

국내 해운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북극항로 개척과 이를 위한 해양수산부·HMM 등의 핵심 시설 부산 이전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 공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부산항이 선제적 투자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다. 현재 북극항로는 1년 중 2~3개월만 운항이 가능하지만 향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양 부회장은 “5~10년 후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부산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

게될 것”이라며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허브항만으로 자리잡기 위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는 있지만 시장 전체 매출과 수익성, 향후 경쟁력을 확보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 부회장은 “해수부나 HMM의 부산 이전 논의는 해운협회가 의견을 낼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내 조선업은 전략 산업이 아닌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과 소형선은 건조하지 않고 있다”며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 간 통합 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서울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수시 설명회

학생·학부모에 실질적 진학전략 안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진학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입학 전형 개요 소개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체육특기자 전형 분석 ▲합격 전략 제시 ▲대학생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명회 현장에는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별 상담 부스도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소재 고·중·초 재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7월 6일까지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참가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2000명)을 초과할 경우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참가신청 인원을 조절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애경산업, 발달장애인과 영화관람 활동

애경산업이 지난 26일 서울 메가박스 신촌점에서 ‘제4회 행복나들이’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으로, 애경산업은 참석자들이 취향과 일정에 맞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애경산업



광동제약-굿윌스토어 ‘기부형 플리마켓’

광동제약은 지난 27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와 함께 ‘기부형 플리마켓’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동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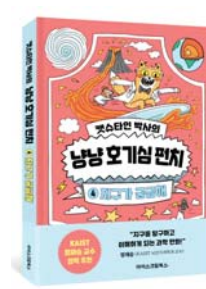
아이스크림에듀, 어린이 과학도서 출간

갯슈타인 박사의 낭랑호기심 펀치 네번째 시리즈 ‘지구가 궁금해’

아이스크림에듀가 출간한 어린이 과학 도서 ‘지구가 궁금해’ (사진), 초등 눈높이에서 지구과학 개념과 호기심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박스’가 초등학교 생을 위한 과학 학습 도서 ‘갯슈타인 박사의 낭랑 호기심 펀치’ 시리즈의 네 번째 편 지구가 궁금해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지진, 화산, 기후 변화 등 지구와 관련된 자연현상과 이슈를 아



인슈타인을 닮은 고양이박사 ‘갯슈타인’과 조수 ‘헬릿’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풀어낸다. 2022 개정 교과내용을 반영해 과학 개념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아름다운 우리 별 지구’, ‘땅, 생명이 움트는 터전’, ‘푸른빛이 춤추는 바다’ 등 총 5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만화와 삽화를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초등 교과서 속 지구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 담양군 ◇지방서기관 △산업안전국장 김동진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주호 ◇행정 5급△행정과(직무파견, 담양군 문화재단) 한연덕 △기획예산실장 정경옥 △행정과장 이승모 △주민복지과장 최미정

부음

▲ 정계용(향년 86세)씨 별세, 이상용(울주군청 홍보미디어과 공보팀장)씨 장인상 = 29일, 김천제일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월 1일, 장지 김천시립추모공원. 054-433-9444

